

# “이석기 사퇴하고 진보당 해체” 십자포화

새누리 “협의 확정시 黨 해체 수순 밟아야”

박지원 “출당조치나 스스로 탈당하게 해야”

심상정 “불체포특권 연연 말고 수사 청하라”

여야는 3일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까지도 이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와 의원직 사퇴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측의 수사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의원 등 진보당의 반발이 국민을 이 헤시키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당은 만약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그런 정당이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고 당연히 (국회의원들)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민의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이나 법적 수사를 떠나 (이 의원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부자감세 철폐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

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 의원을 겨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당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의원) 출당조치 하든지 이 의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현재 국정원에 알려진 바로는 10여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런 제명 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진보정당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전라북도부장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고립된 친북주의자들의 피해망상과 영웅심이 결합된 권위 간담회에서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이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내란음모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동안 드러난 이 의원의 여러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언행들이었다”며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이 의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이석기 선긋기’…국면 전환 안간힘

민주당이 소위 ‘이석기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신속 처리를 통해 ‘이석기 사태’를 빨리 털어내고 이번 사건에 묻혀 버린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해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우선 체포동의안을 4일 체포동의안 처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피해망상’, ‘광신교적 분위기’ 등의 원색적 표현뿐 아니라 ‘제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신중론도 완전히 사그라진 상태는 아니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마무리

되면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정원으로 다시 칼끝을 돌릴 태세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이번 수사의 시기적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원의 죄가 털끝만큼도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국정원 문제가 다시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고민이 적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벼랑 끝’ 진보당 대응책 마련 ‘골머리’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통합진보당이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며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때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 등 야당까지 등을 돌린데다 여론의 반응도 싸늘해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당과 ‘경기동부연합’ 등 사건에 직접 연루된 세력을 분리함으로써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3일에도 ‘초비상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오전부터 바빠 움직이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를 강력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으며, 오전에 소속 의원과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도 열었다.

진보당은 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이 다른 당 의

원들과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부탁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 진보당은 국정원과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체념 섞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당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건에 당의 명운을 걸고 대응하기보다는, 당 전체와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을 분리해 대처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은 당원들도 있다. 당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부 세력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석기’ 불뚝 튼 문재인

文 국회 회기결정 안건 투표 기권 놓고

새누리 “체포동의안 반대나” 책임론 제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가 뜻밖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불뚝이 튀고 있다.

새누리당이 3일 문 의원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이 새누리당 공격의 표적이 된 것은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됐고, 2005년에 다시 사면 복권됐기 때문이다. 또 문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기권’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것이라는 공격의 빌미가 됐다.

이에 문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지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기권했다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의 공격은 집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에 “법무부 지침은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2년 6개월의 80%면 2년을 살아야 하는데 1년3개월밖에 안 돼서 가석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며 “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특별 가석방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의 출당기념회에 참석해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며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와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도의회 결의안 본회의 통과

활성화 촉구 건의문 발표

전남도의회 김재무(사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이 2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국보급 문화재와 1000여 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체계적 관리를 통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부부터 중단상태를 빚고 있는 백운산의 국립공원지정 문제는 균형적 지역발전과 국민행복·문화융성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의 명현관(민주당·해남·사진) 의원은 2일 열린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명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원인가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곳이 다도해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주변에는 두륜산 도립공원과 대흥사 등 서남권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라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1층 브랜드커피숍 계약완료!  
2층 레스토랑 카페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70P

지상2층 PC방 203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